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裵東守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동1051
전화(967)8133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最大의 봉사
1,最大의 협동
1,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962-5895
967-9807
967-8133사무실

'84生藥栽培 教育

受講希望者의 부담감 고려 적합한 教材配付·要点강의

1日5時間 週3回·短期教育

協會本部에서 一個月間 繼續

協會에서는 거의 每年實施해온바 있는 中央召集集체教育(2박3일간씩)에 對한 그동안의 교육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여러가지 미흡된 문제점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금년에는 1日5시간 정도、週3회이상、재배교재에 의한 요점강의형식으로 短期教育方針을 채택 1개월간 계속 實施하기로 하였다 한다。

이 方案은 거의 每年정기적으로 실시한바 있는집체교육에서 (2박3일간) 開講 다음날부터 많은 人員이 교장을 離脫하는 현상과 수강자의 제부담(개인숙식비·교장임대비·초빙강사수당등)이 가중한데 따른 불만요소를 해소하는 고려에서 決定된 것이라고 하며 이번의 1日短期教育 實施結果는 하나의 시범케이스로 評價할 것이라고한다。「그리고 當初 本教育計劃은 1일 40명씩 편성하였으나 教場사정으로 25명씩 축소 편성하고 이미 수강일자가 通報된 피교육자는 1번~25번까지는 변동이 없으나 26번부터는수강일자가 변동된다고 하며 이 변동일자는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으므로 착오없기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참고로 협회 84년교육계획을 다음에 소개합니다.

「84년 생약재배 정기교육계획」

1、목적=기성회원 및 생산농가의 재배수확 및 제품능력을 향상시켜 국민보건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한다。

2、방침

가、재배희망자(초심자)를 모집하여 재배관리요점을 중점으로 강의한다。

나、기성회원중 피교육희망자는 수강대상에 포함한다。

다、본 교육은 1일5시간 단기교육이며 매주3회 1개월간 계속 실시한다。

라、본 교육의 수강료는 무료로 하되 별도정한 교재대를 수납하여야 한다。

3、피교육대상자=생약재배 희망자

4、교육기간=

가、84년10월23일~84년11월30일(1일5시간 주3회이상)

나、피교육 희망자가 많을 경우는 연장실시할 수 있다。

5、교육과목=강활、결명자、길경、토당귀、두충 반하、사삼、시호、오미자 율무、백작약、지황、토천궁、일천궁、황금、황기등 30여종)

6、세부교육계획

가、수강희망자 접수기간=84·9·20~10·22까지

○직접 내방접수 및 우편접수도 가함。

○접수순번에 의거 수강일자및시간을 개별통지함。

나、수강료=3,000원(교재대)

다、수강희망자 접수 안내 홍보

○농수축산신보=1회 (84년9월17일자)

○농민신문=1회 (84년9월29일자)

○협회기관지=1회 (84년9월1일자)

라、교육장소=협회 본부(1일40명 수용)

마、강사진 편성= 협회 자체충원

바、세부교육시간계획= 별도배부

7、기타행정사항

가、수년간 실시한바있는 정기소집 집체교육을평가하고 금년도 교육방침을 재배희망자 (특히초심자) 우선으로 모집하여 접수순번으로 40명씩 편성 1일 단기 중점교육 방식으로대체 실시하게 되었읍니다。

나、각급 분 사무소장은 84년 생약재배 정기교육방침을 숙지하시고 해당지역 거주 재배희망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협회본부로접수기간내에 등록을 할수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해당지역 수강 희망자를 일괄접수코저 할경우는 분 사무소장명의로 단체접수도 가능하오니 그명단을 조속히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價格表示制 88년까지 全業所확대

消費者 피해보상체제 확립

정부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價格表示업소의 대폭확대、소비자 피해보상체제확립등 流通構造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16일 상공부에 따르면가격 표시업소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지난6월 말현재 6만6천백79개인 표시업소를 금년말까지 8만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4만개소를 더 늘려 12만개로 확대하고 오는86년까지는 일반소매시장은 30%、편의점과 전문점은 70%、백화점및슈퍼마키트에 대해서는 전업소가 가격표시를 실시토록 이끌어 총18만3천5백개업소에 대해 가격표시제를 실시토록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오는88년까지는 영세 소매점을 빼고는 전업소에 가격표시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표시업소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고 소득표준율을 10%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가격표시제 확대실시와 관련、상공부는 가격표시 실시업소의 문제점과 현황분석을 위한 실태조사에착수했다。

가격표시 실태조사는▲서울 釜山▲京畿 江原▲忠南北▲全南北 ▲慶南北등 전국을 5개반으로나누어 앞으로 한달동안 실시하게 되는데 문제점을 찾아내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격표시 실시현황 조사는 전국 가격표시정업소가운데 백화점 일반소매시장 슈퍼마키트 전문상가 잡화점 공장도 가격표시 업소등 각 시·도단위로 10여개업소를 선정、이들업소의 가격표시 방법및 표시가격 이행여부등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각업소의 가격표시 용기포장 가격표등을 직접 수집하여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운영실태 조사도 병행、보상기구 설치지정사업자가운데 제조업과·백화점·쇼핑센터등 대형유통업체의 소비자불만처리실적과 조직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운영에 따른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農木産部 食糧節約·食生活개선 캠페인

식량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갖자

우리는 옛날부터 손님이 찾아오면 산해 진미를 먹고 남을 정도로 가득차려내놓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식생활습관은 식량의 낭비를 가져오고 또한 건강을 해친다。

우리 모두 하루빨리 이런 식습관을 고쳐 음식의 낭비를 줄이고 전 가족이 둘러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길 수있도록 생활 형편에 맞게음식을 장만해야 하겠다。

먹다 남은 밥을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그냥 내버리거나 또한 음식점에서많은 종류의 반찬을 차려내놓지만 수저 한번 건드리지 않고 버리는 등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낭비하는 경향이 많다。

음식의 낭비를 줄이기위해서는 밥과 반찬을 자기가 먹을 만큼씩만 덜어서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밥을 큰 그릇에 가득담아 이를 다먹으면 좋지만 밥이 남게 되는 경우를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다。이때 남은 밥에는침속에 있는 아밀라제라는효소가 묻어 당화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밥은 대단히 빠른속도로 변질될 뿐 아니라 위생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밥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식사량에 맞추어 과식을 피해야 할 것이며 위생적인식사를 위해서는 작은 공기에 밥을 덜어 먹도록 해야 하겠다。

바로 이것이 식량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닐런지?

국민 모두가 한 끼에한 수저씩만 낭비하지 않는다면 연간 약 3백만섬의쌀을 절약할 수 있다는 보고도 나와 있다。

또한 조리과정에서 버려지는 식품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다。

한 조사에 따르면、조리과정에서 버려지는 식품은 어패류의 경우 40%나 되며 과실류는 21%、채소류 17%나 된다。 이러한 식품의 폐기는 대개 관습적인데 버려지는 부분에는 비타민과 칼슘、철、인등 무기질등의 영양소가 많이함유되어 있다。

그러므로 식생활을 과학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나쁜 식생활관습을 바로잡아 영양 섭취의 과부족이 없도록 함은 물론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식생활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식량을 아끼는 마음못지않게 즐기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관습을 길러야 하겠다。

우리는 옛날부터 어른앞에서는 밥만 처다보면서빨리 식사를 끝내는 것을식사예법으로 생각해 왔고어린이들은 밥상머리에 앉아 부모의 온갖 꾸중을 들어야 했다。 최근 핵가족제도가 정착되어가면서 식사분위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식사때는 침묵의 습관이 남아있어 즐거워야 할 식사시간이 오히려 부담스럽기만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가족끼리 둘러 앉아 화기애애하게 담소하며 식사를 즐기는 모습은 보기에도 좋을뿐더러 좀더 창조적인 일을 의논하며 생활의 여유를 즐길 수 있으리라 본다。아울러 주부들은 가족의 영양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써서 가족수에 알맞게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단을 짜놓는다면 낭비하는 일이 없어 가계부에도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식생활을 영위할수 있어 가족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 본다。

건강보리쌀(割麥)을 애용합시다。

(祝) 發展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江原道支部

道支部長 宋寅秉
횡성군 사무소장 辛元一
정선군 〃 金德奎
철원군 〃 朴永任
강릉시및명주군 〃 崔二圭
태백시 〃 姜聲福
화천군 〃 韓曣澤
동해시 〃 鄭義老
원성군 〃 全承杓
춘성군 사무소장 金學善

京畿道支部

道支部長 吳寬秀
양평군 사무소장 金財根
평택군 〃 徐成九
포천군 〃 李寅基
화성군 〃 成樂庸

1984年 9月 1日